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한자점자의 공인을 촉구하며 - 조재훈(작가)

○ 테마기획

편리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인 터 뷰

활력UP! 건강UP! 자전거 타는 남자 조승현 씨

○ 포 커 스

인천-몽골, 골볼로 하나 되요!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결혼

04 | 시선집중

▶ 한자점자의 공인을 촉구하며

조재훈(작가)

06 | 테마기획

▶ 편리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08 | 인터뷰

▶ 활력UP! 건강UP! 자전거 타는 남자 조승현 씨

10 | 포커스

▶ 인천-몽골, 골볼로 하나 되요!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어떤 번덕

이진규(서울특별시 관악구)

13 | 월드 리포트

▶ 중국 시각장애인, 상하이 지역에서 대학 입학시험 1등 차지해

▶ 기내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빛이 된 여중생 클라라

14 | 뉴스앨범

▶ 한시련, 2018년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 한시련-팀넷코리아, 시각장애인의 애플 제품 사용 돕기로

▶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가정문화체험을 떠나요!

▶ '놀멍, 쉬멍, 걸으멍' 휴가를 즐겨요!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에게 대필 및 대독 서비스는 필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 ○ ○

결 혼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점 자 일 랑 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자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문 장 부 호	!	?	.	,	-	~(—)		*		“ ”		‘ ’			/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영 어	영어식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 ㅅ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한자점자의 공인을 촉구하며

조재훈(작가)

예전에 어떤 기사 가운데 오기가 있었다. 한자점자 창안자 조재훈을 조제훈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성명이나 지명 같은 것을 소위 고유명사라고 한다. 단어 뜻 그대로 사람의 이름이나 고장의 명칭은 그것에 한해서만 고유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이 나타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한 때는 체신부에서 해마다 전화번호부를 출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지역 전화번호부에 조재훈이란 이름이 10명이 넘게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부에서는 조재훈이란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구분을 위해 한자 이름을 병기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고유명사의 면모를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글전용시대가 되고부터는 이런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학을 하시던 분들은 한글세대를 조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유 씨하면 다 같은 유 씨가 아니요 정 씨 나 강 씨 역시 한자로 따지면 전혀 다른 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조상이 다른 사람들이 발음이 같은 글자를 쓰는 이유 하나로 동성인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 유교에서는 조상을 잘 못 모시는 일은 죄악 중에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가?

우리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유네스코(세계 교육 과학 문화 기구)에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맹퇴치에 공이 있는 것을 유엔에서 표창할 때도 세종상을 주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이 좋은 글을 잘 못 사용하여 종종 곤란을 겪게 된다. 요즘은 외래어가 남용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적이 많다. 또 그 표기의 오류에서도 나타나는 실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된다. 그 오류 가운데 한자 용어를 잘못 표기하여 실수하는 일이 많다. 앞에서 재훈이란 이름을 제훈이라고 쓴 데 대해서도 한자가 쓰였다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것이다.

인류는 학문에 의하여 4차 산업시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학문은 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기록이 이루어진 때부터를 말하고 있는 사실로도 문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시각장애인들 역시 브레일의 6점 점자가 보급되면서 학문의 길에 들어가 무화인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브레일점자가 창안된 지 200년이 되었어도 한자점자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모든 한자를 6점 점자 4칸 이내에도 표기할 수 있는 한자점자가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어원에서 공인을 받지 못하여 빛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현재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한글점자도 익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그 성적을 평균값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언제나 발전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전에는 백만인이 한 사람을 위해 일하였지만 현재의 과학문명시대에는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백만 혹은 수억의 인류를 위해 공헌한다는 말이 있다. 그 실례로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 같은 인물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해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는 중국을 공부할 시각장애인 인재를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한자점자가 없이 현재 중국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맹문(중국 점자)로는 학문이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니까.

다행히 한국 점자연구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하여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문서상으로 고증이 된 고려시대부터의 시각장애인의 고유 직업이 있다. 그것은 동양철학에 의한 역리학이다. 동양철학하면 한자를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업 가운데 고유업종이라 할 안마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이 역리학에 다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자점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그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자점자의 공인을 위한 것이라면 아주 소모적일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한자점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으므로 국립국어원에서 속히 한국 점자규정에 한자점자를 포함시켜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니까. 그런데 국어연구원에서는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한 부서까지 생겼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더 절실한 문제는 한자세대가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가까운 지인 중 묵자와 점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처럼 묵자와 점자를 꿰뚫고 있는 인재가 현역에 있을 때 한자점자의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서둘러야 될 것이다. 이 분은 한글 점자 뿐 아니라 일어, 영어 등에 대한 점자와 묵자도 알고 특히 그 어려운 좌씨춘추 같은 한문 서적을 점역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한글 점자, 일어,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 점자에 까지 능한 석학이 현장에 있을 때 공인과 아울러 그 기초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편리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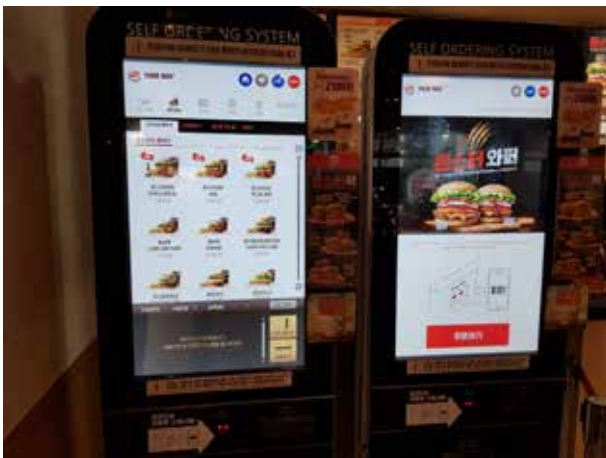
최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동사무소 등 공공장소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직접 대면해서 처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무인단말기를 이용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게 터치 몇 번에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단말기, 다른 말로는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키오스크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문 등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는 음성 지원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이에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의 주최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장애인 배려 없는 키오스크, 현황과 제도 방안은?’이었으며,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의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략 고찰’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에 이어 충북대학교 문현주 교수는 ‘무인단말기 접근성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국내의 무인 단말기 실태를 주로 다뤘는데요.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정책연구원은 시각장애인의 무인단말기 접근을 위해서는 점자나 버튼이 제공되어야 하며, 음성지원서비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4조에서 명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이러닝 콘텐츠, 가전, 전자도서, IOT, 키오스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시각장애인도 무인단말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활력UP! 건강UP! 자전거 타는 남자 조승현 씨



Q. 안녕하세요, 사이클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인천장애인사이클연맹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곳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구가 저에게 자전거를 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이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인가 2009년 쯤일 겁니다. 처음으로 시합에 나가게 되었는데 순위권에 들게 되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만 하다가 야외로 처음 나갔을 때에는 다양한 길을 달리다 보니 스릴도 있고 실내와는 다른 스피드가 느껴졌습니다. 이때 사이클로 전국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많은 운동 종목 중에서 사이클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2004년 시각장애를 얻게 된 중도 시각장애인인데요, 시각장애가 오기 전에도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마라톤,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을 즐겼지만 시각장애가 오고 나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더군요. 그래서 사이클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실내 사이클을 시작했는데 실내 사이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매력적인 운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 종종 사이클 시합에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시합 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 일까요?

A. 아무래도 연습이겠죠, 시합이라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합 전에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바닥에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감기도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더군요.

Q. 현재 탠덤 사이클을 타고 계신데 탠덤 사이클은 두 명이 타는 자전거인 만큼 둘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타시는 파일럿은 어떻게 만나신건가요?

A. 제가 처음 사이클을 시작할 때부터 10년 동안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인천 남구 소방대의 50대이신 구조대장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탠덤 사이클은 둘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되기 전 분당 페달을 돌리는 횟수를 의미하는 페달링을 맞춰보게 됩니다. 제 페달링이 분당 100회 전 정도 나오기 때문에 파일럿 역시 비슷한 속도가 나와야 하는데 페달링이 서로 잘 맞습니다. 페달링이 서로 맞지 않으면 페달이 아킬레스건을 칠 위험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각자 연습을 하고 시합이 임박하면 3~4일 전부터 전략을 세우고 코스를 점검하곤 합니다.



Q. 지금 두 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A. 지금은 서로 10년 동안 함께 한만큼 말을 하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는 상황입니다. 사이클을 타면서 방지턱이나 좁은 길, 코너 등 난코스가 있으면 전에는 이야기를 통해 서로 상황을 파악했었는데, 지금은 페달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대 7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 난코스에 진입할 경우 40km 정도의 속도로 낮추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Q. 사이클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A. 항상 사이클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지만 작년 4대강 강줄기를 따라 돌면서 느낀 것이 강줄기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력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으로 상황을 느끼는데 당시 지방 특유의 색과 맛, 산과 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자전거 종주 때에는 지방에서 자전거를 수리할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타이어를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2번이나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Q. 이번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800km를 자전거로 완주하셨는데요, 많이 힘드셨을텐데 어떤 전략으로 완주하실 수 있었나요?

A. 인천에서 부산까지 완주하는 데에는 총 4일이 걸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5일, 하루에 150km를 목표로 잡았지만 막상 종주를 시작하니 컨디션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파일럿과 저는 하루에 50km씩 추가해 하루 200km를 달리게 되었고, 목표보다 하루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에서 안동댐 코스와 문경새재 쪽의 이화령고개가 난코스이기는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Q.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사이클의 어떤 장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사이클은 몸무게가 실리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고 나이 든 사람도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활량에 좋을 뿐 아니라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중심을 탄탄히 다져주고 실내와 실외, 다양하게 자신과 맞는 곳을 선택해 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부상의 위험 때문에 사이클을 하기 겁난다고 종종 말을 하는데 다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떨치고 나온다면 분명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올 가을이나 내년 5월쯤에는 강원도로 종주를 떠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 사이클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곳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현재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으니 판문점에서 신의주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겠지요.



인천 - 몽골, 골볼로 하나 되요!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에서는 몽골과의 골볼 교류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인천과 몽골 시각장애인들의 열띤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골볼이라는 경기인데요. 골볼은 시각장애인들의 스포츠로 양쪽 눈을 모두 눈가리개로 차단한 선수가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것입니다. 청각과 촉각을 활용해 빠르게 전환되는 공격과 수비에 대비해야 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1회 인천·몽골 시각장애인 골볼교류대회로써 몽골 선수단 26명(선수12명, 임원 14명)과 인천 선수단 31명(선수 12명, 임원 19명),

심판 및 운영 요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인천광역시의 후원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여자경기, 남자경기, 혼합경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인천과 몽골의 선수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최선을 다해 스포츠 경기를 펼쳤습니다.

인천과 몽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에 골볼을 알리고 낙후지역에는 기술과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인천과 몽골의 시각장애인이 골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장애인 체육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번덕

이진규(서울특별시 관악구)

10월 중순 모일 강원도 산골로 이사했다.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촌락이다. 태백산 허리에 등지를 틀 듯 포근히 들어앉은 이 고을 풍경은 온통 울긋불긋 단풍으로 뒤덮인 한 폭의 산수화다. 산에 오르면 다람쥐, 토끼, 꽃사슴 한가로이 뛰놀고, 먹음직스레 익은 산과일들 올망졸망 가지에 매달려 눈길을 부르고, 이름 모를 들꽃 풀꽃 피어 방 그레 웃음 짓고, 산새, 들새, 뺨꾸기, 풍경 소리 청아하게 산봉우리 돌아드니,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고 어딜 이르랴.

11월 중순 모일 아침에 눈을 뜨자, 드디어 온 산과들이 하얀 꿈의 축제를 펼치고 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접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동경하던 신선들의 정원이라는 설원은 내가 얼마나 꿈꾸던 그림 같은 파노라마인가! 역시 나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당을 쓸면서 아내와 눈싸움을 했다.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좋아 아내도 나도 웃음 을 그칠 줄 몰랐다.

12월 하순 모일 열흘째 눈이 계속 퍼붓는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삭신이 쑀신다. 운동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던데 이젠 정말 아닌 것 같다. 방송에선 서울 사람들이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냐고 야단들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아 하네.

1월 초순 모일 미처 치울 여가 없이 연일 퍼부는 눈의 높이가 초가지붕과 키를 다투고 있다. 눈인지 원수인지 이젠 교락서니도 보기 싫다. 허연 눈이 하늘에서 쓰다버린 쓰레기로 보인다. 고리짝 같은 제설차는 어디서 우두커니 낮잠만 재우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눈 귀산한테 공공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데 기척도 없다. 어디서 화투장이나 돌리고 앉았는지 누가 알겠어?

1월 중순 모일 문 안만 대충 밀고 사는데도 마침내 몸살이 낫다. 아내도 나도 퍼질러 누워 꼼짝할 수가 없다. 약도 사러 갈 수가 없어 고스란히 이틀째 누워 앓았다. 집안에 남아 있는 먹거리라곤 라면 몇 개가 전부다. 라면으로 3일째 버티고 있다. 이마져 떨어져 굶어 죽어도 누가 알기나할까. ‘도대체 여기가 북극 에스키모네 집이야? 우리 집이야?’ 우와, 진짜 육이 입 에서 고장난 판매기처럼 줄줄 샌다.

1월 하순 모일 오전에 잠깐 제설차가 다녀갔지만 문 앞으로 잔뜩 밀어붙이거나 소금만 질질 흘리고 다녀서 오히려 엉망진창이다. 소금을 뿌리려면 왕창왕창 뿌릴 일이지 질질 흥내만 내고 다니는 건 또 뭐야? 도대체 소금 뿌리는데 드는 돈이 제 돈이야? 쓰라고 있는 국가 예산인데 공짜 뺏다가 어디다 쓰려는 수작들인지, 몽땅 잡아다 눈 속에다 영구히 갈무리 해 두면 좀 속이 내리겠다.

2월 초순 모일 우리 자동차가 허연 가루를 흠뻑 뒤집어쓰고 등만 내놓고 숨어 있다. 전기도 전화도 한 번 가더니 다시 는 얼굴도 안 비친다. 완전히 구석기 움집 외딴집이다. 일기예보는 또 30cm의 눈이 더 온단다. 아예 우리를 가두어 죽이든지 굶겨 죽이든지 맘대로 해라. 요 못된 눈귀신야. 30cm가 더 온다던 예보가 무려 1m나 더 내렸다.

2월 중순 모일 도대체 하늘 막창이 찢이지 않고야 이렇게 퍼부를 수가 있냐고! 무당 굿판이라도 벌여 띄시루라도 안겨야 속이 풀리려나. 요즘은 하나님도 맨입으로는 눈길도 안 준다던데.

제설차마저 발이 묶이자, 운전수가 눈을 헤치고 집으로 들어와 삼을 좀 빌려 달라고 애걸이다. 그동안 눈 쓰레기 때 문에 삼을 두 자루나 분질러먹었다고 퍼 대다가 별수 없이 빌려줬더니 놈이 그마저 해먹었다. 다리깡이를 때놓으려다 참았다.

2월 하순 모일 라면으로 근근이 연명을 하다가 오늘 겨우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읍내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좀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재수 없이 멧돼지같이 생긴 사슴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로 치고 말았다. 차 수리비가 꽤 나올 듯하다.

3월 중순 모일 지난겨울에 얼마나 소금을 퍼부어댔는지 자동차가 온통 삭아서 수리비가 거의 찻값이다. 눈은 제설차로 밀어자지 도대체 왜 소금은 왕창왕창 퍼 대서는 남의 차를 거지 강통으로 만들어 놓는가 말이다. 국가예산을 아낄 줄 모르고 제 돈 안 든다고 이 따위 짓을 함부로 해대는 인간들은 몽땅 소금물에 담가서 팍팍 절여야 제 맛을 낼 텐데.

3월 하순 모일 도대체 신도 포기한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마침내 우리는 아비귀환의 골짜기를 벗어나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아아!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사람의 도시인가!

중국 시각장애인, 상하이 지역에서 대학 입학시험 1등 차지해

중국의 시각장애인 10대 소년이 상하이 지역 대학 입학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하이 하이라인 등 현지 매체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왕원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해 상하이 지역 1등의 영광을 품에 안은 것인데요.

미숙아로 태어나 수정체뒤섬유증식이라는 병을 앓은 왕 군은 3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원은 열심히 공부하는 틈틈이 체력단련을 위해 마라톤을 하기도 했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왕원의 부모는 아들을 '낙관주의자'라고 표현하며, 왕원의 어머니는 "우리는 언제나 아들에게 목표를 높게 가지라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시·청각장애인에게 빛이 된 여중생 클라라

지난 6월 20일 미국 폭스 뉴스에 여중생 클라라 델리(Clara Daly, 15)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에 시·청각 장애인 남성인 팀 쿡(Tim Cook)이 탑승했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안 돼 쿡은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쿡을 도우려 시도했지만 쿡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고, 당황한 승무원들은 기내 방송을 통해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 때 여중생 클라라가 쿡의 자리로 다가와 남성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클라라의 사인에 안도한 쿡은 물을 마실 수 있는지와 시간, 화장실 위치 등을 물어보며 비행 내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난독증으로 인해 1년 전부터 미국식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클라라를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한시련, 2018년 전국심화재활교육 실시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컨싱턴리조트에서 2018년 전국심화재활교육(지도자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각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부, 지회의 리더 250여 명이 참가해 강의를 듣고 시각장애인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순길 서기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시련-팀넷코리아, 시각장애인의 애플제품사용 돕기로

지난 6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와 주식회사 팀넷코리아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팀넷코리아는 애플 코리아의 대표 리셀러로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IT 기기인 애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인데요.

한시련과 팀넷코리아는 본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애플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가정문화체험을 떠나요!

지난 6월 16일 토요일,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시각장애인 가정문화체험 '우리가족 슈퍼슈퍼 그웨잇'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10가정, 총 34명은 가장 먼저 파주 임진각 DMZ로 향했습니다. 제3땅굴도 관람하고,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쪽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일산 아쿠아플라넷으로 이동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아이들은 좋은 날씨에 나들이를 나와 소풍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행복해 했습니다.



‘놀멍, 쉬멍, 걸으멍’ 휴가를 즐겨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 서는 2018년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돌봄가족은 시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인데요. 이번 휴가제는 24명의 부모님들에게 온전한 휴식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제주 아쿠아플라넷 관람, 체트보트 체험, 수월봉 산책, 곶지과물해변 물놀이, 에코랜드 관람, 족욕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는데요. 이번 휴가제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대필 및 대독 서비스는 필수

시각장애인이 관공서, 은행, 시설물 이용, 상품구입 등 기타 관련 정보를 유인물을 통해 제공하고,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읽고 쓸 수가 없으므로,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상세히 읽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서류작성을 도와주시면 아주 좋겠지요? 이때 알게 된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7월 216호

발행일 2018년 7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